

#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김민소장  
탕탕평평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물론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간혹 첫 이미지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에서 상대에 대한 첫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상대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이 좋다. 또 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좋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 한번쯤 상대의 직함을 불러주거나 명함에 소개된 내용을 언급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다. 또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상대에게 존대를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상대에게 존중 받기 마련이다. 상대에게 정확한 직함이나 호칭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경계심이 해제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극히 기본적인 것들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이 유연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며 살다보면 자신만의 고집과 유연하지 못한 사고가 굳어지기도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나와 다른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며, 상대는 무조건 나의 얘기를 경청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여유가 없다. 그런 사람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차라리 벽을 보고 대화하거나 혼자서 사색하는 편이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사실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이다. 모든 거래가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그 생리는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사야하고, 설득해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설득당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천상천하(天上天下)유아독존(唯我獨尊)’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나 협상에 능해야 하며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다.

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유인즉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이 충분히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말은 큰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생각과

마음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는 관계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습적 내가 먼저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얼핏 보면 미련한 듯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다. 즉 세상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필자만의 노하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대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을 먼저 들어주면 그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후에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필자의 경험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은 말이 앞서는 사람, 피드백이 신속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주장만 하는 사람,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사람,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사람, 실제로나 SNS나 통신상에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을 경계하면 된다. 이런 유형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거래를 하든 어떤 관계로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삶도 결국 그 자체가 정치고 비즈니스이다. 살아있는 한 정치나 비즈니스에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다는 것은 아주 잘났거나 아주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데일리풀리 정치연구소장

## e스포츠, 인식 개선 나서야할 때



김나인  
(산업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VS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카카트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선정된 e스포츠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둔 성적이다. 한때 한국이 최강자 자리를 차지했던 리그오브레전드(Lol)도 중국에 승기를 빼앗겼다.

단지 게임 성적 뿐이라면 한때 느낄 승패의 감정으로 끝날 일이다. 문제는 게임 시장에서 커지는 중국의 기세다. 또 게임 산업을 대하는 두 정부의 자세다.

‘2017년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830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63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33억원에 달한다. 취업유발효과도 1만173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e스포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중국 정부는 일찌감치 내다봤다. 2012년부터 ‘12차 5개년 문화산업 배증계획’에 게임을 11대 중점 산업으로 포함시켜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 것이다. 자국 게임을 보호하기 위한 ‘판호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채택 또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투자로 이뤄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쟁에 길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도입부터 게임 사용 금액을 묶은 온라인, 웹보드 게임 규제는 게임 산업 진흥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e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8.9%에서 2016년 15%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과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지 모른다. 뒤늦게 정부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선은 게임 산업의 균원적 경쟁력 육성과 인식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닌지 고심해봐야 할 때다.

/silkn@metroseoul.co.kr

##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임용 △감찰관 최상훈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서민환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일평 △건설정책국장 정경훈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장급 승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김홍목  
◆한국폴리텍대학 ◆선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퍸스 지역대학장 노정진 △성남캠퍸스 지역대학장 이영화 △화성캠퍸스 지역대학장 정인학 △의산캠퍸스 지역대학장 차신태 △영주캠퍸스 지역대학장 유태근 △진주캠퍸스 지역대학장 박문수

◆서울대 △기획부총장 직무대리 및 기획처장 이효원 △국제대학원장 정종호 △교수학습개발센

## 터소장 박종소 △행정대학원 학생부원장 엄석진

◆이화여대 △부속초등학교장 정혜영 △국제대학원 국제학과장 헤더 월로비

## 부음

▲ 강화자씨 별세, 황세영(서울지방경찰청 홍보협력계장)씨 장모상, 진수정(건설공제조합 법무팀장) 모친상 = 9일 오전 9시 30분, 의정부경찰서장 특1실, 발인 11일. 031-871-4444  
▲ 태현석씨 별세, 태양식씨(SBS A&T 보도영상본부장) 자녀상 = 8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2-2650-5121  
▲ 임경숙씨 별세, 정호준씨(전 안동 음식의거리상가번영회장) 부인상, 정건홍씨(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연구원) 모친상, 임정아씨(청송군의회) 시모상, 정금민씨(경기일보 기자) 백모상 = 8일, 안

동의료원 장례식장 5분향실, 발인 10일. 010-4810-2699

▲ 김옥자씨 별세, 최용민(위덕대 교수)·최정미(관리약사)·최경윤(공무원)씨 모친상 = 8일, 경북포항시 북구 포항시민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54-253-4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 국장	이장규
인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 문의	02)721-9851, 9826
독자 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40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0141호



aT, 중앙亞 세계유목민대회서 韓 농식품 소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aT)는 2~

8일 카르타고에서 열린 ‘2018 세계유목민대회’에서 한국 농식품 소비자 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세계유목민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고, 격년으로 열리는 행사다. 80개국에서 온 3000여명이 참여했고, 관람객은 1만명을 넘겼다.

/aT



건보공단 서울본부, 장애아동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

본부는 지난 8일 서대문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우리 함께 그리는 사랑이 뿜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벽화봉사엔 서울지역본부 건이강이 봉사단 및 대학생 봉사단과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 20여명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 무협, 18일 남북정상회담 점검 컨퍼런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2018 무역협회- CSIS 리커넥팅 아시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8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에 맞춰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CSIS 존 험리 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과 남북미 외교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

황 분석과 북한 비핵화, 역내 경제협력 방안 및 다자간 외교에 대해 논의한다. 남북 철도를 비롯한 동북아 육로 연결 전망과 아시아 각국의 미래 전략 등도 다룰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I-SEOUL·U와 함께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업무협약식

2018. 9. 7(금) 서울특별시청



벤츠 사회공헌부, 서울시와 어린이 교통안전 공동캠페인 MOU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난 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및 시민의 교통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디미트리스 실라리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여성벤처협, 이동의 상근부회장 선임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이동의 상근부회장(사진)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동의 신임 상근부회장은 삼성전자 마케팅부서를 거쳐 KTF 마케팅 부장, KTF 해외 JV 법인장, KT 무선마케팅단장 및 글로벌 사업개발 담당 상무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국립 순천대학교 산학연 구지원과장을 지냈다.

이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벤처기업 성장에 민간기업과 공직에서 얻



은 경험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협회가 여성 벤처기업 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와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